

이성중심의 사고방식 극복한 새로운 인식론

유럽식 사고방식 극복... 마투라나·슈미트 등 다양한 이론

노진철

경북대 교수·사회학

최근 서구에선 구성주의Constructivism 혹은 급진적 구성주의Radical Constructivism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식론이 재창되고 있다. 여러 학문분야에서 이에 대한 담론이 행해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하나의 고유한 인식론으로서 그 구조들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게 되기엔 다른 인식론에 비해 이 구성주의의 역사가 너무 짧다. 그러나 현재의 작업상태로서도 이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것을 이미 지니고 있다. 구성주의는 우리에게 주체/객체, 물질/정신 이원론에 토대를 둔 이성중심의 유럽식 사고방식의 전통을 극복할 수 있는 인식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인간의 인식가능성에서 출발

구성주의는 기존의 철학적 인식론과 달리 객관적으로 존속하는 사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닌 인식가능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인식의 문제를 풀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구성주의를 반사실주의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구성주의자들의 정식화가 경험적 연구의 결과, 특히 신경생

리학적인 연구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인식론의 논의는 일상적 경험을 단순한 견해로 환원시키거나 그 배후에 있는 실재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먼저 이러한 성찰의 노력은 관념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현대 과학적 연구성과와 관련되어서 점점 더 이러한 배후에 있는 실재가 인식 그 자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것은 주체 개념의 의미를 변화시킨다. 그와 함께 관념주의의 이론은 구성주의에 의해서 교체되고 있다. 사실주의와 관념주의 사이의 논쟁은 점차 비중을 잃고 있다.

구성주의는 무엇이 참되고 올바른 사실인가 하는 '무엇'에 대한 전통적인 질문은 인식문제를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현실적이고 의미없는 것이라고 본다. 구성주의는 인간이 언제나 주어진 조건 속에서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객관성,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 같은 것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렇지만 결코 극단적인 회의주의나 과학적 연구에 대한 포기나 흐르진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절대적 진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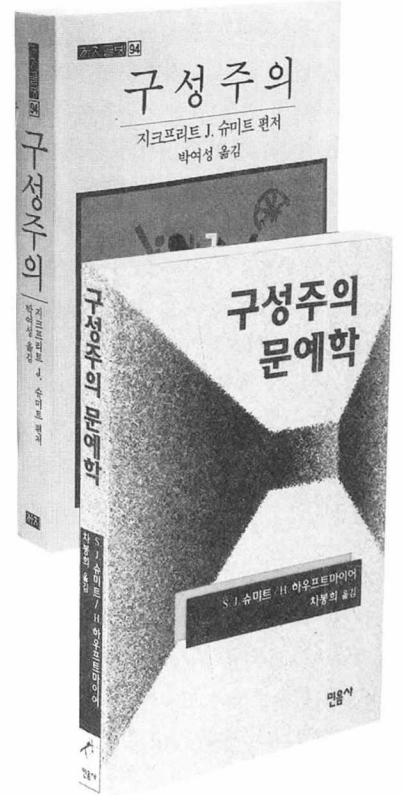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과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며, 자신의 삶을 이뤄나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데카르트 이래 철학적 인식론은 이성 중심의 계몽주의에 강한 신뢰를 가지고 경험적 인식의 선험적 조건에 대한 확고하고 영원한 근거를 세우는 과제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구성주의는 경험적 인식의 선험적 조건이 아니라 경험적 인식 그 자체를 문제로 삼는다. 엄밀한 의미에서 선험적/경험적이라는 구분보다는 체계/환경이라는 구분을 논의의 중심에 놓는다. 인식론적 선험주의가 객체이론적 발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주체와 객체 혹은 주체와 대상간의 차이를 기반으로 하여 진리의 확고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몰두하였다면, 구성주의는 체계의 자기준거로부터 출발하여 특정한 체계의 입장에서 무엇이 그것의 환경인가를 밝히려고 한다. 따라서 후자는 이성이나 진리에 대한 강한 회의를 보여준다.

외부세계에 대한 열린 체계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다. 구성주의에서 모든 인식체계(관찰자)는 현실세계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체계들이다. 그들의 인식과정과 관찰, 그리고 인지는 현실로부터의 단절에 근거한다. 구성주의는 우리가 외부세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바로 외부세계로 통하는 길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외부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인식은 오로지 자기활동적인 조작 일반으로서만 수행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식은 관찰대상인 환경이 체계내에서 그대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에 의한 자기고유한 구성이 된다. 즉 체계에 의한 자기고유한 복합성의 형성이 곧 인식이다. 이러한 복합성은 환경에 의하여 구조화되는 것도 규정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환경은 더 이상 존재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체계의 인식적인 구성을 왜곡시키는 부담일 뿐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 체계는 자기준거적으로 폐쇄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폐쇄되어 작동하는 한에서 외부세계에 대해 열린 체계인 것이다. 체계가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에 열려 있는 것은 체계내적인 정보처리의 논리적 폐쇄성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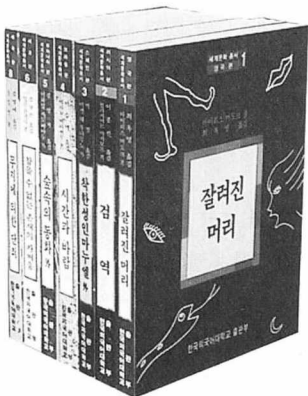
신경생리학자인 마투라나와 바렐라는 자기재생산(Autopoiesis)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체계의 자기재생산의 순환성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이 개념을 살아 있는 체계의 일반적인 조직원리로서 파악하였다. 그들은 자기재생산적 체계를 상호작용하는 구성요소들의 재귀적인 연결망으로 짜여진 체계이면서 동시에 그 구성요소들이 그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다시 동일한 연결망을 생산하는 체계로 이해하였다.

살아 있는 체계는 조직의 측면에서 보면 폐쇄적이고 따라서 자율적이지만, 물질과 에너지의 측면에서 보면 열려 있다. 즉 자기재생산적 체계에는 그들의 구성요소와 관련해서 보면 어떠한 투입과 산출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계의 구체적인 조작상태는 환경이 아니라 체계 자체로부터 결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투입/산출 구분과 체계/환경 구분간의 연결은 쉽게 이해가 간다. 그러나 폐쇄적인 내부적 순환성에 따른 환경과의 연결, 즉 내부적 조작으로부터의 단절에 의한 외부와의 연결은 무엇을 의미하

화제의 책

세계 각국의 문학작품

한국외국어대 출판부 '세계문학총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외국문학의 본격적인 소개를 위해 간행하는 '세계문학총서' 1차분 8권을 출간했다. 아시아는 물론 유럽, 북미와 중남미, 동구권, 아프리카 문학

까지 포함할 이번 총서는 세계 각국 작품의 원전 번역이라는 점에서 이제까지 중역으로 접했던 외국문학의 진수를 맛볼 수 있어 더욱 기대가 크다.

1차분 8권으로 선보인 이번 총서의 첫권은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 아이리스 머도크(1919~)의 《잘려진 머리》(최옥영 옮김)를 비롯,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막시모프의 《검역》, 스페인의 미겔 데 우나무노와 까밀로 호세 셀라의 《착한 성인 마누엘 외》, 브라질 에리코 비리시무의 《시간과 바람》, 루마니아의 마하일 사도베아누와 바르부 슈테퍼네 스쿠 델라브란체아의 《숲속의 동화 외》, 체코작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일본의 나츠메 소오세키의 《산시로》, 태국의 차 꺾짓의 《무지에 의한 단죄》 등이 총서에 포함돼 있다.

현대 과학 세계로의 지적 대탐험 사이언스 마스터즈

이제 『사이언스 마스터즈』에서 과학의 신비를 하나하나 풀어가십시오.

인류의 무한복제는 가능한가?
지구의 최후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인류의 시작, 그 흔적은?
당신이 궁금해하는 미지의 과학세계로 떠나십시오.
쉽게 풀어 쓴 과학이야기—「사이언스 마스터즈」
세계적인 석학 22명이 최신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얘기해 드립니다.

**전세계 26개국
동시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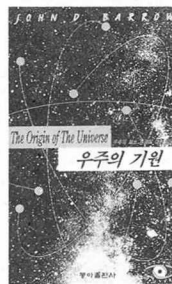
사이언스 마스터즈 시리즈 '95 신간 안내



지구 최후의 운명에
관한 시나리오
마지막 3분

2126년 8월 21일,
거대한 혜성과 지구가
부딪친다.
남은 시간은 3분,
지구의 운명은?

폴 데이비스 지음



우주 최초의
흔적에 대한 탐사
우주의 기원

코비워성이 전한 우주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주의 시작, 초팽창,
오늘날의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비밀의 기원을 찾아간다.

존 배로우 지음



물질의 핵심에 대한
본격 해부
원소의 왕국

물질의 핵심으로의 신나는
여행/
저명한 과학자, 훌륭한 여행
가이드와 함께 떠나는
원소의 세계를 기대해 보자.

피터 앳킨스 지음



유전자로 본
진화의 메커니즘
에덴 밖의 강

과연 인류는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한 것인가?
유전자의 결합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종으로의
분리는?

리처드 도킨스 지음



화석 사냥꾼이 들려주는
최초의 인간이야기
인류의 기원

인류는 과연 20만년 전
아프리카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6만년 동안 지구의 주인이었던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유는?

리처드 리키 지음



수학적 시각으로 본
자연의 패턴
수학의 본성

왜 많은 꽃들의 꽃잎이 5개
혹은 8개이고, 국수수에만
6개 혹은 7개인가?
왜 눈송이는 육면체인가?
자연의 수학적 본성은
과연 무엇일까?
이언 스투어트 지음

■ 정가 각권 6,800원

사이언스 마스터즈 시리즈 전22권

▶ 1995년 7월 발간

- 1 「마지막 3분」: 폴 데이비스
- 2 「에덴 밖의 강」: 리처드 도킨스
- 3 「우주의 기원」: 존 배로우
- 4 「인류의 기원」: 리처드 리키

▶ 1995년 근간 예정

- 5 「원소의 왕국」: 피터 앳킨스
- 6 「수학의 본성」: 이언 스투어트
- 7 「1996년 이후 발간 예정
- 8 「지능의 출현」: 윌리엄 깬빈
- 9 「세포의 진화」: 린 머글리스
- 10 「대기와 환경」: 스티븐 슈나이더
- 11 「뇌 속의 세계」: 콜린 블랙모어
- 12 「컴퓨터의 미래」: 다니엘 힐리스
- 13 「시간의 시작」: 조지 스무트

- 14 「암분자의 기원」: 로버트 와인버그
- 15 「입자화학」: 머레이 겔만
- 16 「인지과학」: 다니엘 데닛
- 17 「성의 진화」: 자레드 다이아몬드
- 18 「사회 변화와 적응」: 메리 베이트슨
- 19 「생활사의 유형과 방향」: 스티븐 굴드
- 20 「컴퓨터와 인공지능」: 마빈 민스키
- 21 「적용」: 조지 윌리엄스
- 22 「언어와 정신」: 스티븐 핑커
- 23 「주제 선별중

동아출판사

편집 (02) 866-8800 (교환 317)
영업 (02) 861-4818 / (02) 853-5608

구성주의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객관성,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 같은 것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렇지만 결코 극단적인

회의주의나 과학적 연구에 대한

포기로 흐르지는 않는다.

는가? 바로 여기서 구성주의를 이끄는 핵심적 사고가 드러난다.

두뇌를 연구하는 신경생리학자들에게는 오래 전부터 두뇌가 환경과의 접촉이 없이도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 두뇌의 활동은 신경체계의 감각수용기들의 전기적 특성이 환경의 영향에 의해 변화되어 전기적 자극을 내보냄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환경에는 이에 상응하는 것이 없다. 두뇌는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맡는 동작에 같은 조작방식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한다. 그에 상응하는 질적 차이는 두뇌에서 구성된다. 이처럼 두뇌는 환경에 대한 직접적 접근이 불가능한 자기준거적으로 닫힌 체계이다.

이로부터 나오는 인식론적 결론은 인식 및 인지과정은 현실 그 자체에 대한 어떠한 상도 제공하지 못한 채 체계내재적 구성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두뇌활동은 거대한 영적 차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비록 환경과 연결되는 접촉점이 하나라도 내부적 작동에서는 수십만의 접촉점이 그에 연결되어 우연성을 창출해낸다.

‘구성주의’의 답론들

끝으로 두뇌활동의 고유한 세계는 환경에서 진행되는 과정으로부터 독립된 속도로 움직여간다. 따라서 환경의 변화를 선택적으로만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들을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보다 향상적인 표현들, 예컨

대 ‘변동’ ‘운동’이라는 단어에 의해서 포착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마투라나와 연결된 자기재생산 개념은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폐쇄적이면서 동시에 개방적’이라는 체계의 패러독스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앞다투어 수용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60년대를 전후하여 이미 정보화사회와 연계된 사이버네틱스, 스펜서-브라운의 구분논리학, 바츨라비크의 심리치료학, 권터의 복합 맥락논리학에 의해 준비되어 있었다.

《구성주의》(박여성 옮김, 까치)는 철학, 문학, 언어학, 심리학, 경영학, 인류학, 사회학 내에서 이 테마가 어떻게 논의되고 발전되는지를 보여준다. 구성주의자들은 먼저 이 개념을 살아 있는 체계에 제한적으로 적용하였으나 마침내 그에 상응하는 속성이 발견되는 모든 체계, 특히 의사소통체계에 적용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이론적 발상들이 등장하게 된다. 로스의 시지각이론, 피르스터의 제2질서의 관찰자이론, 뼈아제의 발달심리학과 접목된 글라스스펠트의 급진적 구성주의, NIKOL(비보수적 문예학)그룹의 《구성주의 문예학》(차봉희 옮김, 민음사), 헤일의 사회학적 체계이론, 그리고 전후 독일을 대표하는 사회학자인 루만의 자기준거적 사회체계이론이 구성주의가 형성되는 데 중심점을 이룬다.

《구성주의》가 주로 구성주의의 주도적 이론가들의 입문적인 글들을 모아 놓아 구성주의의 이론적 기초와 개념들에 대한 접근을 열어준다면, 《구성주의 문예학》은 NIKOL그룹을 끄는 슈미트와 하우프트마이어가 구성주의를 문학에 적용하여 문학텍스트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모색하는 입문서로서 구성주의의 적용 적실성을 타진할 수 있게 한다.

우리 사회에서 구성주의의 수용은 주로 문학쪽에서 강하게 대동하고 있어서 위의 두 번역서 외에도 슈미트가 구성주의의 답론을 대중매체 등 문화영역에 적용하여 인식-의사소통-매체-문화를 연결하는 이론적 작업을 시도한 《인지적 자율성과 사회적 지향》(박여성 옮김, 까치)도 곧 출간될 예정이다. ❖